

- 독립운동은 조선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_ 1919년 3·1운동 직후 피검됐을 때 검사 앞에서의 답변

-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_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자에 발표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첫 문장

-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뒤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오. 더욱이 이 기회를 이용해 국내에 있는 인사만으로 불합리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오랫동안 국외에서 풍찬노숙하던 선배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_ 1945년 8·15 직후 자신의 동지들에게 한 말

- 일본이 망하기는 꼭 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형세가 궁하게 되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치를 준다고 할 것이고 형세가 아주 궁하게 되어서 진퇴유곡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조선 사람에게 독립을 허여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치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 된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다. 망해 가는 놈의 손에서 정권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필경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민족반역자의 이름을 듣게 된다.

_ 일제 말기 동지들에게 자주 강조한 말로 여러 사람들의 회고록에 나와 있다.

후원계좌_ 하나은행 272-910011-42504 예금주_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손금 처리됩니다.)

고하 송진우 탄신 135주년과 서거 80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학술대회

송진우(宋鎭禹)의 민족독립과 자유민주건국을 위한 활동



일시: 2025년 3월 12일 (수) 14:30 - 18: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0층)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주최: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관: 고하자유민주연구원

I N V I T A T I O N

2025년은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5주년임과 동시에 서거 80주 기입니다. 또한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고하 선생은 중앙학교 숙직실을 책원지(策源地)로 삼아 국내의 천도교, 기독교 및 불교를 아울러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가혹한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방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어 내도록 기초를 닦은 국내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여러 이념의 인물과 주의주장을 모두 포용하여 오늘날 민족통합의 경륜과 원형을 보여주신 정치지도자입니다.

고하가 가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진두지휘하셨던 3·1운동과 해방공간에서의 자유민주건국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정치현실에서 고하가 생전에 민족통합의 길로 나아가신 발자취가 오늘날 큰 울림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재)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참석 여부: 02-723-2632, 010-5678-7560으로 연락바랍니다.

진행: 정용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개회식

14:30 - 15:00

- 국민의례
- 개회사 김창식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 축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 고하연구장려금 수여
- 기념촬영

제1부 주제발표

15:00 - 16:15

좌장: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제1주제 고하 송진우의 항일민족독립운동

- 3·1운동을 중심으로 -

발표: 이민원 (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

제2주제 일제 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과 고하 송진우

발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제3주제 해방 직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

발표: 이택선 (명지대 교수)

..... 휴식 16:15 - 16:30

제2부 종합토론

16:30 - 17:30

좌장: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 이선민 (서울대 객원연구원) | 남희숙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김영수 (영남대 교수) | 이명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만찬 (사전예약한 분을 중심으로)

18:00 - 20:00